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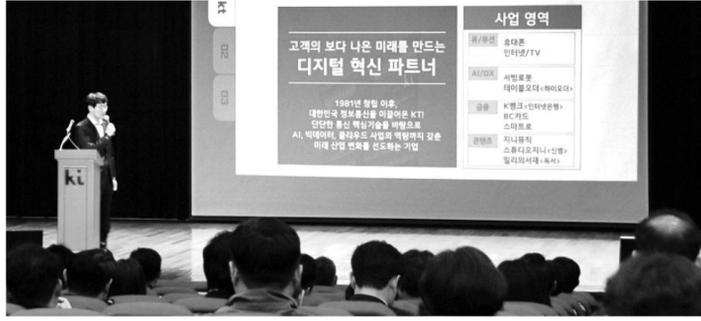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 장애인의 날 기념 힐링 음악회



광주시교육청이 3일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힐링 음악회 'Darkness to Light (어둠에서 빛으로)'를 열었다. (사진)

이번 음악회는 광주 전체 학교와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일상적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T 전남전북본부, 로봇·테이블오더 창업설명회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웅 전무)가 최근 KT 광주타워 대강당에서 로봇과 테이블오더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설명회는 소상공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로봇과 테이블오더의 도입 확대를 위해 KT와 함께 할 대리점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김형록 교수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선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김형록(사진)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최근 열린 '2024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제57차 학술대회'에서 대한대장항문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1년.

김 교수는 대장항문학회 신임회장으로서 대장항문외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며, 대한대장항문학회의 발전과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대한대장항문학회를 발전시키고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에서 대장암 환자들을 진료하며 대장암 치료와 예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강경 대장 수술의 선구자로 국내외 학술지에 대장암 발생 기전 및 치료 방법, 최소 침습 수술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게재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돈가스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회장 조성숙)가 3일 강진읍사무소에서 돈가스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적십자 봉사원 20명이 참여했으며 돈가스 100kg을 만들어 강진군 취약계층 200명에게 전달했다. 강진지구협의회는 12년째 봉사원들이 직접 돈가스를 만들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돈가스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조성숙 회장은 "봉사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큼 어르신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동신대 학생상담센터,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



동신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박은민 교수)가 2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Wee로 꿈기움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학업 중단 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멘토-멘티를 매칭해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과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신대학교 박은민 학생상담센터장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 학생의 개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병원 박대성 교수·나미향 연구원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학술대회 우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박대성 연구교수와 나미향 연구원은 지난 22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열린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학술대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한국심혈관스텐트연구소(소장 홍영준 교수)와 공동연구를 해 얻은 결과다.

이번 박대성 연구교수는 '돼지 관상동맥에서 관상동맥 생체 흡수성 혈관 지지체 및 약물 용출 생체흡수성 혈관 지지체의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나미향 연구원은 'PVA 및 PCL 나노섬유를 이용한 피막형 스텐트 제작 및 비교 평가' 연구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55 중계방송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10	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토론회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11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원더풀 월드(재)	00 SBS 12뉴스 20 만화 네트워크 뉴스 40 7인의 부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광안구를 선거구>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비례대표 2차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인연(재) 30 TV 유치원(재)	35 광주MBC 보다 스페셜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거머숨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워즈 3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후보자토론회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7	00 뉴스7 광주전남 30 방송연설 송영길 광주 서구갑 40 한국인의 밥상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4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5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9	00 KBS 뉴스9		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덩치 서바이벌-먹피빠
10	00 방송연설 이낙연 광주 광산을 05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 10 다큐 인사이트	15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00 KBS 뉴스라인W 4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반려동물극장(재)	35 문화콘서트 난장	50 테마스페셜(재)
12	10 KBS 중계식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심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인간과 바다(재)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찬란하게 아름답다. 튀니지 -시간을 거슬러, 역사 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디스 이즈 코리아 4부 나일의 경주 총집 연가>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귀하신 몸
08:50 고고다노 해양구조대	16:30 페파 피그	22:45 다크멘터리K
09:05 골끼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음 2월 26일 戊戌)

<p>36년생 당래지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반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48년생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보해야만 한다. 60년생 바람직한 방향인지 진로를 확인해 보자. 72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84년생 관행에 얽매어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96년생 즉시 시원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5, 59</p>	<p>42년생 우선시 해줘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54년생 일관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6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78년생 중북 단편과 과감하게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치밀한 대처 없이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02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관계이다. 행운의 숫자 : 35, 78</p>
<p>37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49년생 희망찬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운이므로 다소 미심쩍은 점이 있다고 개외치 말고 임하자. 61년생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73년생 잠깐만 발산만 진부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85년생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97년생 안정세를 띠기 시작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84</p>	<p>43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자. 55년생 적격이 아니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다. 67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79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91년생 손발이 적절 들어맞아 순조로운을 더하리라. 03년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02, 62</p>
<p>38년생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여도 별 탈이 없다. 50년생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62년생 상대의 입장에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울린다. 74년생 낙수물로 바위도 돌리는 법이다. 86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무방하다. 98년생 배아픈 감동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94, 82</p>	<p>44년생 압조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임할 수 있느니라. 56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로다. 68년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다. 80년생 해는 없으리라. 92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04년생 핵심을 짚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8, 96</p>
<p>39년생 원인을 잘 헤아려 보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51년생 지난날의 은원은 말할 것도 없으니, 제반사를 차치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다. 63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75년생 참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87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99년생 함에 부친다면 내려놓아야 맞다. 행운의 숫자 : 19, 87</p>	<p>45년생 앞만 보고 진행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57년생 그대로 놔두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69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81년생 부드러운 논리가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93년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05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2, 65</p>
<p>40년생 관행만을 앞세운다면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52년생 의례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64년생 뒤쫓으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겠다. 76년생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88년생 막연하다면 실수가 잦을 것이니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00년생 조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3, 71</p>	<p>46년생 갑자기 서두른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58년생 상대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70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82년생 이치를 터득해야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94년생 속명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06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6, 70</p>
<p>41년생 바쁘게 쓰다녀야 할 일이 벌어지겠다. 53년생 참된 가치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65년생 문서에 이로운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77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만 없다는 사실을 알자. 89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01년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95</p>	<p>35년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이익이리라. 47년생 집착하다 보면 지나치게 민감해질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괜찮다. 59년생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볼 필요가 있다. 71년생 솜구쳐 오르는 기세의 운로이다. 83년생 반복되면서 실 틈을 주지 않는다. 95년생 핵심을 찾아야만 결론에 도달한다. 행운의 숫자 : 13, 74</p>